

‘지원부서에서 선두 연구부서로 탈바꿈’

-KIST 전자계산실 창설-

안문석

KIST 전자계산실 창설기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에피소드를 정리해 본다.

제1기 : YMCA 시기(1967~1968)

이 시기는 KIST 건설 시기로 전자계산실은 임시로 종로 5가의 YMCA 5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연도는 1967년 후반부터 1968년 초까지이다.

1967년 전반부, 이 당시 성기수 박사는 대단히 분주한 생활을 하고 계셨다.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개발협회의 조사역으로 경제계획의 계량화를 담당하고 계셨다. 또 서울대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에도 출강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같은 해 후반부가 되면서, KIST 전자계산실 실장 권유를 받으신 것으로 보인다. 바텔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보고서인 KIST 전산실 설치 타당성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KIST에 전자계산실이 설치됐고, 초대 KIST 소장이셨던 최형섭 박사님의 초빙을 받으신 것이다.

1967년 말이 되면서 구 대한일보 10층에 자리하고 있던 한국경제개발협회의 조사역보다는 KIST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국경제개발협회는 자유당 시절 부흥부 장관을 역임한 송인상 씨가 경영하던 경제조사연구소로 그 당시 가장 활발한 경제연구소였다.

그곳에서 성기수 박사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계량 부분을 담당하셨다. 성기수 박사를 돕는 연구원으로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승윤 씨(그후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필리핀 마닐라 ADB 이사로 계시다가 타계)와 이명재 씨(그후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가 있었다.

그 당시는 복잡한 계산도 주판이나 계산기(calculator)를 사용하였다. 그 당시 최고의 계산기로 Friden이라는 계산기가 있었는데, 성기수 박사 팀에서는 이 계산기를 다루는 여직원 2명을 항상 고용할 정도로 계산이 많았다.

산업연관표를 경제계획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행렬을 계산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 계산을 계산기를 이용하여 하기도 하였으나, 뒤에는 일본에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사용한 언어는 FORTRAN이었다.

한국에서 FORTRAN 프로그램과 자료를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 계산기 센터에서 계산을 한 후, 그 결과를 한국에 우편으로 보내 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계획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안문석은 이승윤, 이명재보다는 늦게 성기수 박사 팀에 합류하였다. 안문석은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조교로 일하고 있던 중 당시 행정대학원 원장이셨던 이한빈 원장님(송인상 장관 밑에서 과장, 국장을 지내셨다)의 추천으로 한국경제개발협회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소속은 조세팀으로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

안문석은 조세팀에서 일하면서 자주 계량팀을 방문하였고, 이후 이승윤, 이명재, 안문석 3인은 성기수 박사 밑에서 전자계산기에 심취하여 한국 최초의 자생적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성기수 박사가 한국경제개발협회 일을 그만 두고 KIST 전자계실장에 전념하시기로 한 것이 1967년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968년 1월에 세사람은 정식으로 기술수에 임명되었고, 초기 전산실은 이렇게 하여 성기수 실장과 세명의 기술수로 이루어졌다.

근무 장소는 YMCA 5층이었다. 사무실이 없었던 초창기에는 YMCA 사무실도 원자력팀과 같이 사용하였다. 원자력팀의 이창건 선생은 근무 시간에는 항상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특기

였다. 모든 사람이 퇴근하면 이창건 선생은 그 시간부터 연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성기수 박사는 그 당시 홍재동에 살고 계셨다. 미제 픽업 트럭으로 출퇴근을 하셨는데 1968년 초까지도 공군장교 복장을 하고 계셨던 것 같다.

당시 컴퓨터는 펀치 카드(punch-card) 시스템이었다. 컴퓨터는 없어도 펀치 기계는 필요했다. YMCA 방 한칸에 이 기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였다. 펀치 실장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이춘희 씨를 초빙해 왔고, 이렇게 해서 KIST 전자계산실 펀치실이 만들어졌다.

초창기 KIST의 직제를 살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제1연구담당 부소장 밑에는 연구직이, 제2연구담당 부소장 밑에는 기술직이 있었다. 기술부에는 연구를 보조하는 기능, 즉 전자계산실, 도서실, 기술정보실 등이 속해 있었다. 직원의 직급은 지금의 연구원에 해당하는 연구수, 지금의 선임연구원에 해당하는 연구원, 그리고 책임연구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2기 : 기계설치 및 요원선발 시기(1968~1970)

홍릉 A-1으로 이사를 한 것이 1968년 중순이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요원 선발에 들어갔다. 선발의 원칙은 우선 머리가 좋아야 했다. 좋은 머리의 기준은 GRE 성적과 적성검사였다. GRE 문제는 성기수 박사가 미국에서 가져 오신 책에서 출제하였고 적성검사 문제는 기계회사에서 제공한 문제였다.

이 두 시험의 성적이 월등하게 좋으면 OK였다. 최덕규 씨, 한윤경 씨 등이 대표적으로 월등한 점수를 기록한 사람이었다. 생산성 본부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던 사람 가운데 KIST로 옮긴 사람은 김길수 씨였고, 민병민 씨는 김길수 씨 추천으로 선발된 것으로 기억한다. 머리 좋은 기준의 하나는 바둑을 잘 두는 것이었다. 누가 이 기준에 합격하여 들어왔는지 기억은 없으나, 적어도 바둑을 잘 두는 것이 성기수 실장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만은 확실하다.

한편 이 시기는 기계 선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IBM, BURROUGHS, CDC 세 기종이 각축을 다투다가 나중에는 IBM과 CDC로 좁혀졌다. 최종적으로는 CDC로 낙찰되었다.

제1호기인 CDC MSOS가 설치된 것이다.

초창기 전산실 직원들이 하는 일은 CDC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FORTRAN은 한국전력의 송길영 박사(현 고려대 교수)가 담당하였고, OS는 CDC의 이덕순

씨가 담당하였다.

CDC 기계로 낙찰되면서, 성기수 박사와 당시 청와대 과학담당 비서였던 정운수 씨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정 비서관은 다른 기계를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갈등 때문에 기계실 구입 예산이 하루 아침에 임차로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와중에서도 성기수 실장은 기종 선정에서의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높은 곳’으로부터의 압력을 막아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제3기 : 교육반 설치 및 OJT 시작 시기(1970~1971)

초창기 성기수 전자계산실장의 방침은 컴퓨터가 어렵다는 미신을 깨는 일이었던 것 같다. 사실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하던 시절이어서 일반인에게 프로그램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일반 공모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수료자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현지입관(?)하여 교관으로 임명하여 부족한 강사를 충족하였다. 초기 교육은 안문석 기술수가 운영하였다.

교육 수료자 수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작업에 필요한 보조원을 교육반 출신으로 충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가 OJT 제도였다. OJT는 영어로 ‘On the Job Training’으로 실무 수습에 해당한다. OJT 과정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머리가 좋은 것이 증명되면 정식 프로그래머 시험을 치를 때에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초창기 전산실 요원 가운데는 OJT 출신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김봉일 박사(현 KT/SW 연구소 소장)도 이 제도 출신이다.

이 시기에 기억에 남을 에피소드는 MBC 라디오와 함께 ‘컴퓨터에 물어 봅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당시의 컴퓨터는 MSOS로 한 작업이 카드 리더에서 읽힌 후 처리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다시 프린트 되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이 카드 리더에서 읽혀지지도 않는 기계였다. 강연숙 아나운서와 안문석 기술수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그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뒤에서 문제풀이를 도와준 사람이 물론 많았으나 단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OJT 과정에 있었던 김봉일 씨였다.

초창기 KIST 전산실 시기는 성기수 박사의 스포츠 머리와 KIST의 후광으로 인재들이 구

름처럼 몰려 든 시기였다. 성기수 박사의 통찰력과 초창기 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KIST의 한 지원부서에 불과했던 전산실은 그후 다른 연구부서를 제치고 선두 연구부서로
달바꿈한 것이다.